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8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10월 19일 / 등록번호 영등특라00593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의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지도 / 디자인 인쇄소 북행소 더스포트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10.19 / 제8호

MATCH PREVIEW

‘물러설 곳 없는’ 인천,
제주 상대로 11경기 만에 홈 승리 노린다
 ‘위기에 강한’ 인천,
올 시즌 광주와의 맞대결 무패 도전

BLUEMAN INTERVIEW

‘간절함의 대명사’ 이범수,
인천은 가족 같은 끈끈한 팀,
몸 바쳐서 막고 잔류 이루겠다

ROOKIE INTERVIEW

‘돌아온 공격 선봉장’ 김민석,
팀으로 뭉쳐 반드시 이겨내겠다



INCHEON UNITED 2024 SQUAD

최영근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1 백민규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김광석 코치
COACH

김이설 GK코치
GK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종민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표석환 통역
INTERPRETER

김한운 스카우트
SCOUT

4 오반석
DEFENDER

13 최승구
DEFENDER

14 최우진
DEFENDER

37 홍시후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55 권한진
DEFENDER

30 김훈
MIDFIELDER

32 강도욱
MIDFIELDER

33 김현서
MIDFIELDER

22 지연학
FORWARD

24 김민석
FORWARD

27 김보섭
FORWARD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일정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17일(수) 19:00	1	인천 : 김해시청	0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21일(일) 14:00	4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9R	04월 28일(일) 14: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10R	05월 01일(수) 19:00	3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0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2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1	인천 : 서울	2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0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3	수원FC : 인천	1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2	전북 : 인천	2	전주월드컵				
18R	06월 19일(수) 19:00	0	인천 : 김천	0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3일(일) 18:00	1	인천 : 포항	3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6일(수) 19:30	1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20R	06월 30일(일) 19:00	0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5일(금) 19:30	1	인천 : 김천	1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9일(화) 19:30	0	대구 : 인천	0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14일(일) 19:00	0	광주 : 인천	2	광주축구전용				
24R	07월 17일(수) 19:00	1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축구				
24R	07월 21일(일) 19:00	1	인천 : 수원FC	4	인천축구전용				
25R	07월 27일(토) 19:30	0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10일(토) 19:30	0	제주 : 인천	1	제주월드컵				
27R	08월 17일(토) 19:30	2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28R	08월 24일(토) 19:30	0	인천 : 전북	1	인천축구전용				
29R	08월 31일(토) 19:30	1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30R	09월 1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0	김천종합				
31R	09월 22일(일) 19:00	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32R	09월 27일(금) 19:30	1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33R	10월 06일(일) 15:00	1	인천 : 강원	3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9일(토) 16:3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35R	10월 27일(일) 16: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36R	11월 02일(토) 14: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37R	11월 10일(일) 16:3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24일(일) 14:0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변경 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JEJU PREVIEW

‘물러설 곳 없는’ 인천, 제주 상대로 11경기 만에 홈 승리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daum.net)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인천이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로 홈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인천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파이널 B에서 K리그 1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됐다. 다이렉트 강등에 해당하는 최하위로 파이널라운드에 들어선 건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매 경기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은 올 시즌 제주와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2패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시즌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이었던 6라운드, 19라운드 모두 경기 후반부에 실점하며 승리를 내줬다. 하지만 지난 8월 제주 원정에서 무고사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신승과 함께 최영근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올렸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저조한 득점력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이번 시즌 정규 라운드 기준 32골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했다. 인천은 슈팅이 잘 터지지 않는다. 슈팅 수와 유효 슈팅 수 모두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공격진의 부진 속 지난 강원전에서 홍시후의 마수걸이 골이라도 터진 것이 고무적이다. 반면 제주의 경우엔 슈팅 시도와 유효 슈팅 수는 리그 전체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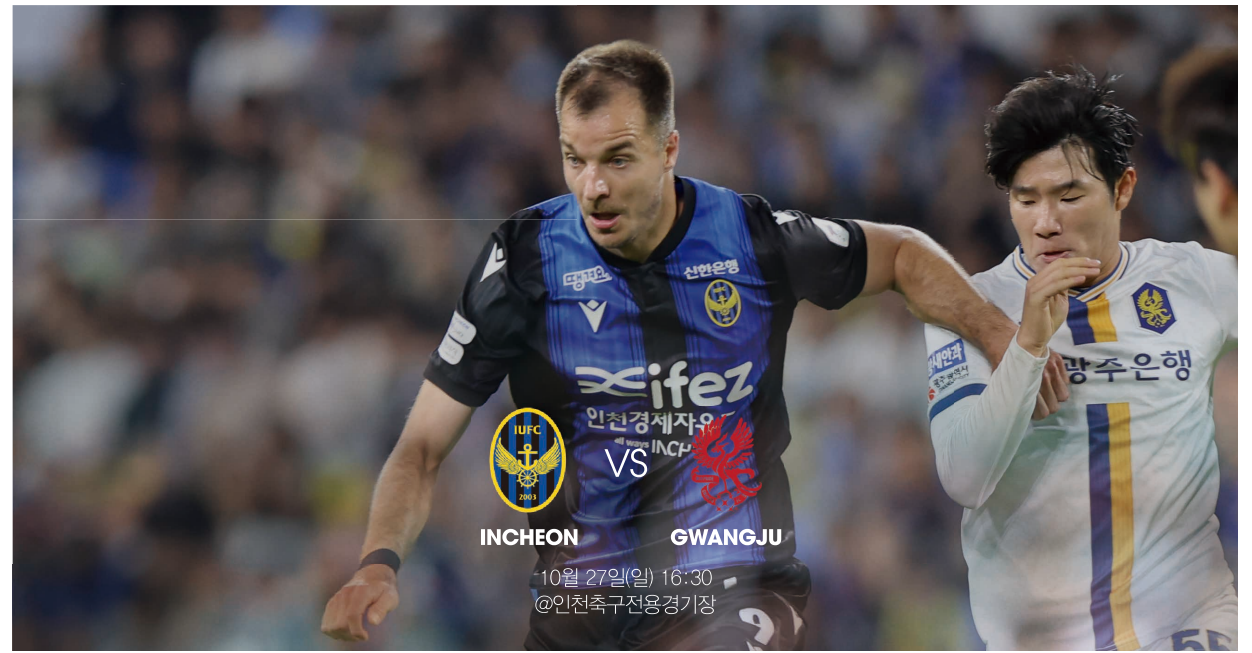
결국은 팀의 주포들이 터져야 한다. 인천은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는 무고사의 결정력이 터져야 한다. 다른 득점원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반드시 결과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해결사의 한 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올해 마지막 A매치 휴식기에서 최영근 감독이 공격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다듬었는지가 경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제주의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유리 조나탄을 잘 막아내는 것도 승부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전 두 경기에서도 연달아 득점을 터트리며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고 지난 6라운드 홈 맞대결에서도 유리 조나탄을 놓쳐 실점했고 패배로 이어졌다. 미드필드에 있는 서진수, 카이나 같은 선수들이 유리 조나탄에게 연결해 주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은 수비에 전력 누수가 있다. 핵심 수비수 요니치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한동안 팀에서 빠진다. 하지만 김연수가 오랜만에 출전해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김동민을 활용한 3백도 가능하다. 델브리지도 회복 상태가 빨라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중요한 건 순간의 수비 집중력이다. 베테랑 이범수가 선방 쇼를 펼치고 있지만 항상 기댈 수만은 없다. 특히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아쉽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80분 이후에 허용한 실점만 3개다. 제주가 최근 3경기에서 80분 이후 득점이 3골인 걸 감안한다면 이날 경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인천과 제주의 통산전적은 18승 20무 21패로 약간 열세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모두 단 한 골로 승부가 갈렸을 만큼 치열한 사투를 펼쳤다. 특히 맞대결에서 나온 모든 득점이 각 팀의 외국인 선수에게 나왔다는 점에서 외국인 용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반등이 절실한 상황 속 홈 11경기 무승을 끊어내는 것이 잔류를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다.



vs GWANGJU PREVIEW

‘위기에 강한’ 인천, 올 시즌 광주와의 맞대결 무패 도전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daum.net)

인천이 K리그 1 잔류를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다. 인천은 A매치 휴식기 이후 두 번째 상대로 홈에서 광주FC를 만난다. 파이널라운드에서 치르는 홈경기가 단 3경기뿐일 만큼 10월에 있는 홈경기의 중요도는 어떤 홈경기보다 높다. 홈에서 분위기를 챙겨야 원정 경기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인천은 올해 광주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 첫 맞대결이었던 5라운드에서 제르소의 극장골로 3-2 역전승을 거뒀고 이후 홈으로 돌아와 붙은 14라운드 경기에서 무고사의 극장골에 1-1로 비기며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가장 최근이었던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도 2-0 승리해 9경기 무승을 끊어 냈었다.

양 팀이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갈 당시 분위기는 서로 정반대다. 인천은 정규라운드 마지막까지 패하며 가라앉은 분위기 속 절치부심으로 파이널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반면 광주는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서 연승을 거두며 선수단 분위기가 한껏 올라와 있는 상태다.

광주는 주말과 주중으로 이어지는 리그와 AFC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조별 예선 경기까지 병행하는 촘촘한 경기 일정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안은 채 인천 원정을 향한다. 파이널 B에 들었지만 강등권과는 6점 차 정도 격차가 있어 국제 무대에 비중을 둘 법도 했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은 33라운드 서 울전 인터뷰에서 오히려 리그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짜임새 있는 선수단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 임하는 인천의 동기부여는 다른 어떤 팀보다 간절하다. 최하위에서 벗어나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인천은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강등권 경쟁 시기만 되면 특유의 에너지와 투쟁심으로 살아남았다. 여러 번 맞이했던 위기였기에 누구보다 이겨내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광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아사니다. 올 시즌 후반기부터 조금씩 출전 기회를 얻어 경기력을 끌어올린 아사니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5골 1도움으로 매서운 발끝을 보인다. 또한 허율이 수비수에서 원래 포지션인 공격수로 올라섰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바로 득점포를 신고하며 원래 포지션에서 능력을 마음껏 보여줬다.

반면 광주의 수비적인 부분은 아쉬운 상황이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클린시트는 단 한 경기뿐이고 멀티 실점을 내준 경기도 3경기나 된다.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보인다. 여기에 선수단 로테이션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에서 빈틈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은 이 틈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인천과 광주의 통산전적은 9승 15무 7패로 약간 우세하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광주를 상대로 6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올 시즌에 팀이 어려운 시기일 때 광주를 만나 승리를 거둬 팀 분위기 반전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통해 파이널라운드에서 고공행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간절함의 대명사' 이범수 인천은 가족 같은 끈끈한 팀, 몸 바쳐서 막고 잔류 이루겠다

글 = 지문호 UTD기자(jimh2001102@naver.com)

사진 = 오석근 작가(punchandjudy@naver.com)



2024년, 한 베테랑 골키퍼가 인천의 유니폼을 입었다. 2010년 전북 현대에서 데뷔해 여러 팀에 몸담았던 이 선수는 올시즌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 국가대표 골키퍼 이범영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놀라운 슈퍼세이브를 자주 보여주며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올 시즌 인천의 수문장 이범수의 이야기다. 단단한 바위섬 아람도에서 UTD 기자단이 이범수를 만나보았다.



아람도해안공원 촬영

송도 아람도해안공원에서 표지사진 촬영했는데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골키퍼 자세를 취하려고 하니 어색했다. 다른 분위기에서 찍으니 어려웠지만, 작가님께서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재미있게 찍었다.

이러한 콘셉트 화보 촬영은 처음인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찍었었다. 결혼식 때 촬영했던 것이 생각난다. 애내가 스냅 촬영 같은 것을 좋아해서 같이 여행 가면 한 번씩 찍고는 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동안 찍었던 것과 분위기가 많이 다른 촬영이다.

무고사, 김도혁에 이어 세 번째 매거진 모델 촬영이다. 이진호 모델 선수들에게 촬영 관련 팁을 받은 것이 있나?

무고사, 김도혁 화보 사진 봤다. 유니폼 사진 말고도 사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어서 김도혁 선수에게 옷 어떻게 입을지 물어봤다. 처음에 정장식으로 입으려다가 애매해서 반바지에 셔츠 입었다고 들었다.

오늘 의상은 김도혁 선수가 알려준 대로 입은 것인가?

처음에 구단에서 정장 느낌 나게 입으라고 하셨다. 집에 찾아보니 너무 격식 있는 정장 밖에 없었다. 와이프가 깔끔하게 입고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입고 왔다.

오늘 촬영 장소인 아람도해안 공원은 처음인가?

처음 와봤다. 집에 갈 때 여기 공원 앞길인 아람대로가 엄청 막힌다. 사실 그것 외에는 잘 모르는 장소였다.

인천 생활은 언제부터 했는가?

작년에 부천 FC에서 뛴 때는 청라에 살았다. 인천으로 이적하고 난 뒤에는 송도에 살고 있다.

얼마 전에 외국인 선수들 가족과 다함께 캠핑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는 여러 군데 자주 가지만, 사실 경기장이나 훈련장 밖에서 다른 선수들 가족까지 함께 뭉쳐서 뭔가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 명주가 초대해서 같이 갔다왔다.



2024시즌 인천의 ‘뉴페이스+살림꾼’

이범수는 올 시즌부터 인천의 엠블럼을 달고 피치에 나서고 있다. 인천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범수는 “처음 왔을 때부터 프런트 직원분들이나 선수들이나 모두가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느꼈다. 끈끈함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팬분들도 열정적이고, 낭만이 있는 팀인 것 같다”고 답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범수는 간간히 인터뷰에서 김이섭 골키퍼코치에게 감사함을 비쳤다. 이에 김이섭 코치가 골키퍼들에게 강조한 점이나 함께 훈련하며 배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범수는 “항상 이섭 쌤은 각자가 생각하는 골키퍼로서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파악하시는데, 그 이상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본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잘 하는 선수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이런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다. 나보다는 한 수가 아니라 몇 수가 더 높으신 분이신 것 같다. 이야기하실 때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을 얘기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며 김이섭 코치의 공을 강조했다.

한편 올 시즌 인천은 이전의 군입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범수를 영입했다. 특히 김동현은 현재 김천상무에서 복무하며 K리그 1 무대에서 활약중이다. 김동현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운동장에서 보면 얘기하고 그러기는 한다. 그런데 깊은 얘기는 못 나눴다”고 이범수는 답했다.

축구계에서 골키퍼들은 성격이 특이하다는 장난식의 말이 있다. 이범수는 자신도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와이프 말로는 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나는 평범하려고 하고, 많이 비춰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런데 나만의 고집이나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발상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답했다. 한편 이범수는 최근 경기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31라운드 울산전 홈경기 시축행사에 골키퍼 보조를 해주었던 이범수이다. 시축자는 유명 아이돌 (여자)아이들의 미연이었다. 이날 경기 중계카메라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비춰진 모습 외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



지 물어보았다. “미연 분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경기 중계 카메라에 보였던 거랑 인터뷰에 비춰진 것들이 전부였다. 어색하기도 했고 카메라도 많았다. 그 카메라가 다 미연 분을 찍고 있길래, 나는 뒤에서 그냥 쭈뼛쭈뼛 카메라 각도 안 비치게끔 피해드리고 이랬던 기억밖에 없다”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다소 긴장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매 경기 간절하게’, 이범수의 경기 비하인드

지난 리그 32라운드 포항 원정 경기에서, 인천은 통한의 PK실점으로 0-1 패배를 당했다. 여전히 가시밭길인 강등권 싸움에서 뒷순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더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이날 경기 중계 화면에 이범수가 PK 후실이 불리기 직전 간절함을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팬들의 감동을 샀다. 이범수는 “그때 당시에는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사실 조르지의 코스를 영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떠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는데, 너무 구석까지 막으려고 하다 보니깐 그 선수가 구석으로 안 찼을 경우의 수는 생각을 못해서 공이 사이로 빠져버려서 되게 많이 아쉬웠다. 우리가 실점을 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고, 골을 먹지 않아야 1점이라도 챙겨가서 스플릿이 나뉘질 때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든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이건 진짜 막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쉬웠다”고 당시 상황과 심정을 전했다.

리그 31라운드 울산전 홈경기에서 인천은 후반전 이범수의 슈퍼세이브를 포함해 수차례 울산의 공격을 막아내며 0-0 무승부를 거두었다. 인천 팬들이 환호를 질렀고, 울산 팬들이 머리를 감췄이었다. 특히 이 경기는 이범수가 몇 주간의 재활 끝에 복귀전을 치른 경기였다. 재활 기간 동안 특별히 중점을 두고 훈련한 부분이 있는지 묻자, 이범수는 “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복귀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몸은 또 성치 않고 해서 답답하고, 또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속상하기도 했다. 빨리 복귀해서 경기 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기를 오랜만에 소화한다는 생각을 하니 좀 떨리기도 했다. 특히나 1위랑 상대하다 보니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부담감보다는 팬들의 응원 소리와 박수 받는 것에서 힘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답하며 복귀전 소감까지 전했다. 특히 후반에 나온 코너킥 헤더 선방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막았다. 그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다 하긴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몸이 반응했다. 공을 따라가다 보니깐 손이 반응하게 되고 몸이 반응하게 된 세이브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울산의 맹공이 이어졌었고, 매 순간 위기를 넘길 때마다 이범수는 골대를 부여잡고 한숨을 쉬는 등 간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점점 시즌 말미로 다가갈수록 실점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아서 항상 위기를 넘어갔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 ‘다행이다. 하나 버텼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순간을 하나씩 버티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팀 상황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실점하지 않고 버티줘야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귀중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뭇은 실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는 지난 8월에 치러진 리그 27라운드 대전 원정에서 후반전에 부상으로 민성준과 교체되었다. 이날 경기 인천은 대전에게 경기 종료 직전에 실점하며 11년만에 대전에게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경기 종료 후 민성준에게 따로 전해준 말이 있는지 물었고, 이범수는 “나는 더한 골도 많이 먹어봤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상황이라서 너도 많이 당황했을 텐데 그래도 괜찮다 하고 그냥 빨리 잊고 또 다음 경기 준비 잘 하라고 얘기해줬다”고 답하며 후배에게 따뜻한 한 마디를 전해주었음을 밝혔다.

이렇게 인천의 골문을 사수하는 이범수는 공이 상대 진영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범수는 “우리가 공격할 때 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 뒤의 공간을 메워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언제 역습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예를 들어 수비 위치라든가 내 위치를 생각하고, 아니면 경기 흐름을 읽으려고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을 따라서 몰입하고 있어야 찰나의 순간에 나와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비수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몰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90분 내내 경기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범수는 “나같은 경우에는 15분 15분 15분씩 쪼갬다. 전반 15분에 초반에는 골 먹지 않고 전반 중반에 가면 경기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기 후반 막바지에는 하나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경기를 읽으려고 한다”고 자신만의 비결을 말해주었다.

이범수는 32라운드가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 선방 확률이 74%로 1등이다 (통계 사이트 Fotmob 출처). 이처럼 탁월한 선방 능력이 타고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피나는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범수는 “내 생각에는 선방을 하는 데 있어서 수비수들도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쪽 각도를 막아주면서 슈팅이 오는 각도에 맞춰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섭 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신체적으로 물려받은 건 부모님의 역할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냥 잘 모르겠다.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영근 감독이 골키퍼진에게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한 게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범수는 이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빌드업 참여를 많이 시키는 편이다. 빌드업 말고는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골키퍼의 역할은 이선 쌤이 책임지고 잘 맡아주셔서 감독님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다”고 말해주었다.

모든 골키퍼들의 목표는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짓는 것이다. 이범수가 생각하는 무실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무실점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팀이 다같이 수비하고 다 같이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최전방 선수부터 수비를 해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서로 힘을 분배해서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뛰고 골 안 먹고 어떻게든 버티내면 위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서로 간의 믿음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게 하나씩 모이다 보면 무실점도 하고 승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이범수는 답해주었다.



베테랑 골키퍼의 선수단 생활은?

이범수는 1990년생으로 베테랑이다. 고참급 선수로서 라커룸 아니면 생활하면서 팀에서 맡는 역할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범수는 “사실 나는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필드가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서로 원하는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데, 우리(골키퍼)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그냥 좀 더 믿어주려고 하고, 또 뒤에서 받쳐주고 ‘내가 뒤에 있으니 너희는 마음껏 공격해라’라고 어떻게든 공격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려고 한다”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외에도 후배 선수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범수는 “나는 아무래도 골키퍼들이랑 얘기를 많이 한다. ‘누군가는 경기를 뛰고 누군가는 경기를 버티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경기를 못 뛰어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버티다 보면 좋은 상황들이 생기고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나도 어렸을 때 참 힘들었다. 더 힘들기도 했었고 더 어려운 적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버티라, 더 기량을 갈고 닦으면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골키퍼들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듯이 그 친구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그러려고 많이 하는 편이다”고 이범수는 말하며 인천의 골키퍼 넷의 사이가 돈독함을 알려주었다.



친형 이범영에게 전하는 이범수의 메시지

이범수의 친형은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으로 잘 알려진 전국가대표 골키퍼 이범영이다. 이범영은 얼마 전 은퇴식을 가지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형에게 한 마디 부탁했다. 이범수는 진심어린 말로 “고생했다. 진짜 힘든 몸 부여잡고 열심히 축구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제2의 인생으로 더 밝게 빛나는 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올 시즌 코리아컵 16강 김천전 홈경기에서 인천은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에 성공했었다. 이범수의 손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상대 키커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흔들며 실축을 유도한 이범수의 루틴이 눈에 띄었다. 이범영의 선수 시절 PK 선방 루틴과 흡사했다. 이 루틴을 형에게 전수 받은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범수는 “아무래도 형을 보고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한다. 상대방의 심리를 많이 흔들어야야 잘 차려고 하던 것도 골키퍼 때문에 쫓아서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위축을 많이 유도하려고 한다. 심리를 흔들어야 키커들이 더 긴장이 된다. 그들은 골을 꼭 넣어야 되지 않는가. PK 못 넣으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다. 우리는 못 막아도 어쩔 수 없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니 까, 우리는 먹혀도 그만인데 필드는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흔들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답하며 승부차기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목표는 오로지 인천의 잔류’, 이범수의 올 시즌 목표

인천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팀의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K리그 1 잔류이다. 이외에도 선수 개인의 목표를 설정해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이범수는 “사실 그게(잔류) 제일 큰 목표이지 않는가. 그거 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개인적인 목표를 누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지금 잔류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잔류에만 신경 쓰려고 하고 있다”며 오로지 인천의 잔류에만 힘쓰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범수는 “일단 언제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테는 관심을 잘 가져주지 않는데 내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하고, 더 잘 해서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또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몸 바쳐서 막도록 하겠다”며 인터뷰 소감을 밝혔고, “항상 저희에게 바라는 거 없이 주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고, 어떤 바람도 없이 저희를 묵묵하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또 항상 ‘할 수 있어 인천’을 외쳐주시는데 저희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에 힘입어 잔류를 이끄는 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말과 믿음과 행동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번 촬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ROOKIE INTERVIEW

‘돌아온 공격 선봉장’ 김민석, 팀으로 뭉쳐 반드시 이겨내겠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지난 31라운드 울산HD와의 홈 경기에서 인천은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선수를 명단에 넣었다. 인천 대건고를 거쳐 프로로 진출하여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민석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해성처럼 등장해 어느덧 프로에서 4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는 팀과 함께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UTD기자는 1군 경쟁에 합류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느덧 프로 4년차, 인천 7년차가 된 김민석

김민석은 인천유나이티드 소속으로 4년, 인천 대건고 시절을 포함하면 총 7년을 인천에서 보내고 있다. 팀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길기에, 김민석에게 인천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민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종종 볼보이로 오기도 했고, 인천 경기를 꾸준히 봤다. 언젠가는 이 무대에 나도 서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실제로 입단하게 돼서 처음에는 신기했다. 경기를 뛸 기회가 왔을 때는 많이 설렘”면서 인천을 향한 감정을 밝혔다.

김민석의 인천 대건고 입단은 친구의 영향이 컸다. 김민석은 입단 과정에 대해 “원래 용인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었다. 그런데 함께 뛰던 친구들 중 두 명이 인천 광성중으로 전학을 갔다. 친한 친구들이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너도 인천 대건고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인천 대건고가 어떤 팀인지 많이 들었고, 지도자분들도 정말 좋으시다는 얘기도 들었다. 스스로 무언가 이끌리는 기분이 들어서 인천 대건고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친구의 영향으로 시작된 인천 생활이 어느새 7년이나 지났고, 처음에는 막내였던 김민석도 이제는 후배가 생겼다. 후배들과의 관계에 대해 김민석은 “평소에 거리감 없이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조언을 해주기에는 나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가 신인일 때 형들의 응원이 많은 힘을 줬다. 그래서 나도 후배들의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은 함께 뛰는 후배들 중 눈에여겨볼 선수로 김현서를 꼽았다. 김민석은 김현서에 대해 “현서와 함께 인천으로 온 (최)우진아도 잘하고 있고,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여겨봤다. 현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하는

선수다. 키는 작지만 균형 감각이 좋고, 드리블도 뛰어나다. 많은 경기를 뛰게 된다면 돋보이는 선수가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칭찬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부상의 악령

올 시즌을 앞두고 김민석은 인천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김민석은 “동계 전지훈련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 측에서 연락이 왔다.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심 기다리고 있던 이야기였다. 팬분들께서 워낙 잘 챙겨 주셨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인천에 오래 있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재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인천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했다.

팀의 일원으로 미래를 그리던 김민석은 시즌 시작을 앞두고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즌 초의 각오가 어땠는지 묻자, 김민석은 “많은 경기에 나서서 발전하고, 팀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개인적인 목표도 최대한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루키’를 넘어서서 잘하는 선수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야심 차게 준비한 시즌이었지만, 전지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불운하게도 부상이 찾아왔다. 김민석은 “전지훈련 도중 스트레칭을 할 때 무릎이 뭉친 기분이 들었다. 그 뒤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햄스트링이 너무 안 좋았다. 병원에 갔더니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정밀 검사를 위해 먼저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병원에 다녔다”면서 당시 부상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는 “고등학교 때도 햄스트링을 다친 적이 있다. 근육 부상은 너무 급하게 복귀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오기보다는 완벽하게 나아서 오자는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재활 과정을 거친 김민석은 시즌 중반인 6월이 되어 수원FC 원정 경기에 복귀전을 치렀다. 복귀전 당시에 대해 김민석은 “사실 출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오랜만에 뛰는 경기라 긴장했는데, (김)건희를 비롯해서 주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다. 경기를 뛰면서 긴장감은 풀렸지만, 생각한 대로 플레이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회상했다.



어느 포지션, 어느 역할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부상을 떨쳐냈지만, 김민석은 기회를 얻기 위해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그 사이 팀을 오랫동안 이끌던 조성환 감독이 떠났고, 과거 인천에서 수석코치로 활동했던 최영근 감독이 부임했다. 김민석은 기다리던 시간에 대해 “감독님이 바뀌면서 기존 전술과는 다른 방향성에 적응해야 했다. 훈련 때 공격수가 아닌 측면 수비수 자리로도 많이 연습했다. 생소한 위치였지만 팀의 전술이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다.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도 최대한 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오히려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였다.

묵묵히 기량을 끌어올리던 그는 9월이 되어 울산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다. 울산을 상대로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썼는지 묻자 김민석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득점도 중요하지만, 무실점이 꼭 필요하다. 훈련에서 수비력을 올리는 과정을 많이 진행했기에 그걸 실전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했다. 공격적인 면보다는 수비, 체력 쪽에 각정이 있었다. 오랜만에 뛰게 돼서 땀도, 체력 적응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복귀전을 통해 감각을 끌어올린 김민석은 다음 경기인 포항스틸러스 원정 경기도 출전 기회를 잡았다. 김민석은 9월의 활약에 대해 “아직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고 체력이 부족하다. 개인적인 몸 상태가 100%는 아니다 보니 자신감이 부족했다. 평소엔 긴장을 안 하는데, 최근 두 경기는 긴장이 됐다. 주변에서 편하게 하라고 했지만, 긴장감을 떨쳐내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쉽다”고 자평했다.



모두가 뭉칠 때 더욱 강해질 인천

어느덧 2024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인천은 하위권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이어 나가는 중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하다. 팀 분위기를 묻자 김민석은 “선수들도 위기라는 점을 잘 안다. 외부에서는 팀 분위기가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선수단이 먼저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끝이다. 그래서 형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훈련하고 있다. 즐거운 흐름 속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훈련 프로그램은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는 중이다. 인터뷰하는 오늘도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훈련의 성과가 좋았다”면서 의지를 보여줬다.

김민석에게 남은 일정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물었다. 김민석은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내려놓았다. 팀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에 투입되면 팀을 위한 플레이를 더 많이 하고, 수비적으로 해야 할 때는 그에 맞춰야 한다. 언젠가 들어가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팀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겠다”면서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김민석은 팬들을 향해 “올해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기대감을 갖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것 같다. 인천에는 좋은 선수들이 여전히 많다.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팬분들도, 선수들도 서로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단하게 팀으로 뭉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남기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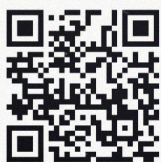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IUFC TV

우리가 알지 못했던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피치 위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YouTube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

